

 힘내라 대구정북 힘내라 대한민국	<h1>보도참고자료</h1>	배 포	2020. 5. 15.(금)
		담 당 과	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
과 장		채규한 (☎043-719-2610)	
사 무 관		현미영 (☎043-719-2630)	
 식품의약품안전처			

식약처 차장, 국가 필수약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

필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강화와 치료제 개발 노력 강조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이의경 처장)는 양진영 차장이 5월 15일 ‘한국 유나이티드(주)’ 의약품 제조소(세종시 소재)를 방문하여, 국가필수 의약품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.
-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‘국가필수의약품’으로 지정·관리하여,
 - 공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해외에서 긴급히 들여오거나 직접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방문은 국내 제조를 통해 지난해 ‘미토마이신씨’(항암제)의 수입중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국가필수 의약품 제조 노력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, 의약품 개발 및 제조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- 양진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“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며,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 연구개발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습니다.
- 이와 함께 “식약처도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하였습니다.